

# 核 宇宙船 研究팀 構成案

## 軌道높이 發射通告 其他規制

### 機能 異常警報・領空과 外界問題 等

- ◇ 최근 국제적 壓力を 받아온 蘇聯이 지구軌道에 올라 있는 모든 原子力 宇宙 ◇
- ◇ 船에 국제적 制限을 가하게 할지도 모를, 원자력우주船의 安全對策에 관한 ◇
- ◇ 유엔內에서의 技術研究에 參與키로 同意했다. ◇

今年 1월 24일 大洋監視原子力宇宙船인 “소비에트 코스모스 954號”의 破片이 캐나다 領土에 떨어진 후 그 연구는 한층 活潑해지고 있다. 이 연구결과로 近距離地球軌道에 올라 있는 原子力 宇宙船에 對한 規定이 나오게 되고 국제적 압력에 의해 蘇聯이 이 규정을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된다면 이는 蘇聯의 軍事的 大洋監視計劃에 深刻한 險跌을 주게 될 것이다.

蘇聯이 國際的 壓力으로 어쩔 수 없이 이 技術研究에 參與하지 않으면 안되는 處地에 있지만 유엔外界委員會 傘下 法司分科委員會에서 原子力宇宙船問題를 舉論하는 일에는 계속 反對意思를 表示하고 있다. 美國은 내년 3月 法司分科委員會에서 그 問題를 거론할 計劃으로 있으나 蘇聯은 反對하고 있다. 여기에서 어떤 決定이 이뤄지는 境遇 그 決定에는 將來 法的 拘束力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科學技術分科委員會가 말고 있는 그 技術研究에는 그러한 法的 拘束力이 반드시 뒤따르는 것은 아니다.

蘇聯의 大洋監視原子力宇宙船에 制裁措處가 있게 된다면 美國防省으로서는 뜻하지 않은 橫財를 얻게 되는 것이다. 蘇聯에서는 1967年 以後 Cosmos 954號와 같은 大洋監視衛星을 16隻이나 發射해 왔으며 이러한 蘇聯의 레이다監視體制를 美海軍은 큰 威脅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해마다 約 2隻이 조금 뜻되는 比率로 發射해온 셈이지만 蘇聯은 危機狀況이 發生할 경우 潛水艦을 包含한 蘇聯의 攻擊體制가 美軍艦艇을 向해命中시키는데 必要한 資料를 供給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大洋監視衛星을 發射하고 싶으면 어느때든 그렇게 할 수 있다.

사실 이러한 試驗發射가 平均 一年間隔으로 있어왔는데 蘇聯이 Cosmos 954號의 事故 때문에 試驗發射時間表를 變更했다면 그 失敗作인 Cosmos 954號의 發射가 약 10個月前인 1977年 9월 18일에 있었기 때문에 곧 이 變更事實이 可否間 分明해질 것이다.

美國이 유엔에서 原子力宇宙船에 관하여 技術的 및 法的 兩面으로 研究分析하는 일을 支持하고 있는 것은 事實이지만 放射性 同位元素 熱發電機(RTGs)도 함께 制裁措處對象이 된다면 그 制裁措處는 結局 쌍날칼이 되고 마는 格이다.

美國은 유엔에서 大氣圈外의 原子力에 관한 討論이 있을 때 原子爐의 使用과 比較的 安全한 RTGs의 利用은 같을 수가 없다고 陳述했다.

來年 2月 科學技術分科委員會는 原子力宇宙船 問題를 分析檢討할 研究팀을 構成할 것이며 蘇聯側에서 쳐어도 1名은 參加할 것이다. 이 研究팀은 1979年 6月에 열릴 全體宇宙委員會에서 그 동안의 研究結果를 發表할 것이다. 여기에서 全體委員會가 採擇한 建議案은 유엔總會로 上程되고 이제 最終決定을 기다리게 된다.

## —核宇宙船에 관한研究—

다음은研究팀의研究課題이다.

- ◎ 軌道높이 : 一定軌道높이 以下에서도 原子爐稼動을 許容할 것인가?
- ◎ 發射通告 : 原子力宇宙船의 未定發射에 對한通告가 있어야 하는가?
- ◎ 施設의 多樣性 : RTGs는 原子爐와는 다르게規制되어야 하는가?
- ◎ 機能異常警報 : 發射國이 原子力宇宙船에 機能異常이 있음을 發見했다면 유엔이나 다른나라에 그點을 알려야 하는가?

美國과 蘇聯이 原子力問題에는 서로 意見差異를 보이고 있지만 유엔會議에서 可能한한 빨리外界問題가 다뤄져야 한다는 開發途上國의 提議에는 똑같이 反對立場을 取하고 있다.

宇宙參與國과 開發途上國사이에서妥協的인立場을 取해온 外界委員會는 늦어도 1983년까지에는 유엔宇宙會議가 열리도록 9月總會에建議할 方針이다. 그러나 그建議가 總會의 承認을 받는다 해도 그後 2~3年은 지나야 할 것이다. 유엔宇宙會議는 1968년 비엔나에서 열렸었다.

美國과 蘇聯은 그렇게 가까운 時日에 會議가 열리는 것을 달갑지 않게 생각한다. 宇宙會議에臨하는 데는 時間的 餘裕가 있어야 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宇宙參與國들은 來年에 開催될 開發途上國을 위한 유엔科學技術會議에서 어떤結果가 나올 것인지 알고 싶어한다.

外界委員會傘下 科學技術分科委員會가 언젠가는 있게될 宇宙會議顧問으로 推戴될 것이다. 하지만 開發途上國들은 여기에 꼭 同意한다고 볼 수 없다. 開發途上國들은 그 회의에서 우주문제의 極적 그리고 政治的 部面이 다뤄지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法司分科委員會가 包含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開發途上國의 主張에는 美國側으로서는 何等 問題가 되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 地同位軌道空間 : 同位軌道停留場이 바로 많은 開發途上國들이 位置하고 있는 赤道上에 있어야 하는데 어떤 경우 이를 국가들은 領空위의 空間을 不可侵領域으로 看做하고 있다. 美國

은 그러한 領空 위의 空間이 宇宙船에 支障을 주는 곳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믿고 있다.

◎ 領空과 外界 : 개발도상국가들은 領空과 外界에 對한 明白한 定義를 갖고자 하지만 美國은 어떠한 定義도 必要치 않다고 믿고 있으며 蘇聯은 協商領域을 두자고 提議했다.

以上의 論爭點外에도 개발도상국들은 더욱더重要한 爭點으로서 그들의 領土에 對한 遠隔偵察과 直接衛星放送 문제를 들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미국은 蘇聯 및 개발도상국과 의견대립을 가져 왔다.

## 산업용 잠수 작업

### 훈련센터 개설

나날이 수요가 증가하는 잠수 전문요원의 양성과 재훈련을 위한 “산업용 잠수 및 해저 작업 훈련 센터”가 최근 프랑스에서 창설되어 석유탐사를 위한 해저 시추작업이나 위험한 수중심해작업의 안전도를 높여주며 인력수급과 전문직을 담당하는 중심역할을 하게 되었다.

프랑스 국립 해양 센터(CNEXO)와 마르세이유 상공회의소가 합동으로 추진한 이 센터(CETRAVIM)는 최대의 안전 조건에서 가능한 한 다양한 작업 결과를 얻기 위해 수심 60m깊이에서의 안전 훈련, 수중 작업 실습, 심해ダイ빙의 안전 훈련의 3가지 과정을 두고 있다.

이 훈련들에 이용되는 장비는 24×10m의 바지선에 부착된 수심 120m까지의 심해ダイ빙 장비, 해안에 설치된 초압력 센터, 수심 90m 깊이의ダイ빙 장비가 달린 2대의 크레인 등이다.

이 연구소는 올해 말까지 약 50명의 훈련생을 양성할 계획이다.